

CHAPTER 5. 특수대학·계열 입시 성공 필승 전략

2) 최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 의·치대 입시의 모든 것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대를 정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가 자연스레 '줄 세우기' 되지만 의·치대 진학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자연계열 최상 위권의 배치표는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대를 포기하는 대신 지방 의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어쨌든 의·치대가 최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내신과 수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비교과, 논술,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를 부각할 수 있는 전형을 택해 입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와 달리 의·치대 입시의 경우 전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대부분 여러 전형요소가 두루두루 우수한 '팔방미인'이어야 합니다.

고교 3년간 내신 성적을 '매우 우수'하게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수능학습도 놓쳐선 안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원자들의 내신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체계적인 학생부 비교과 관리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대입 면접보다 훨씬 강도 높고 복잡한 면접을 치러내야 합니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지원자 역시 내신, 수능을 잘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논술 준비가 필요하지요. 공부만 잘 하기도 어려운데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막막한가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챙겨야 하니 고교 3년간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죠. 하지만 의·치대 진학에도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의·치대 입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막연하게 의·치대 진학을 꿈꾸지만, 실제로 의·치대 가 어떤 전형 과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각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춰 학습 계획을 짜고, 진학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단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60% 이상 수시로 선발

우선 각 대학의 신입학 전형계획안을 기준으로, 2019학년도 의·치대 신입생 선발 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전국 37개 의대에 서 총 2855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치대는 11개교에서 632명을 선발 합니다.



2019학년도 의·치대 신입생 선발 대학 및 인원

구분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대학(모집인원)
의대 (37개교, 2855명)	△가천대(40명) △가톨릭관동대(49명) △가톨릭대(93명) △건양대(49명) △경북대(110명) △경상대(53명) △경희대(110명) △계명대(76명) △고려대(106명) △고신대(76명) △단국대(천안)(40명) △대구가톨릭대(40명) △동국대(경주)(49명) △동아대(49명) △부산대(125명) △서울대(135명) △성균관대(40명) △순천향대(93명) △아주대(40명) △연세대(110명) △연세대(원주)(92명) △영남대(76명) △울산대(40명) △원광대(76명) △울지대(40명) △이화여대(76명) △인제대(92명) △인하대(49명) △전남대(125명) △전북대(110명) △제주대(40명) △조선대(125명) △중앙대(8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한림대(76명) △한양대(110명)
치대 (11개교, 632명)	△강릉원주대(40명) △경북대(60명) △경희대(80명) △단국대(천안)(70명) △부산대(40명) △서울대(45명) △연세대(61명) △원광대(81명) △전남대(35명) △전북대(40명) △조선대(80명)

의·치대 역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시기 및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의대가 전체 선발인원 의 62.9%인 1796명을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나머지 37.1%(1059명)는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치대의 경우 전체 선발인원의 61.2%인 387명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38.8%(245명)를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치대 진학의 문은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넓은 것이

지요.

ii2 2019학년도 의·치대 모집 시기 및 전형별 선발인원(비율)

구분	수시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특기자	수시 총계	
의대 (2855명)	857명 (30.0%)	640명 (22.4%)	254명 (8.9%)	45명 (1.6%)	1796명 (62.9%)	1059명 (37.1%)
치대 (632명)	215명 (34.0%)	120명 (19.0%)	39명 (6.2%)	13명 (2.1%)	387명 (61.2%)	245명 (38.8%)

수시는 다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특기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치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가장 큼니다.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30%를, 치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34%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내에서의 비중만 보자면 의대는 47.7%, 치대는 55.5%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의·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할 루트입니다.

의·치대의 정시 비중은 40%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대학의 수시와 정시 비중이 7대 3, 최대 8대 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의·치대의 경우 아직 정시 비중이 꽤 유지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시만을 바라보고 의·치대 진학을 준비하기에는 리스크가 큼니다. 정시는 전적으로 '수능 싸움'입니다. 수능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정시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일부 있음). 문제는 수능이 일 년에 단 한 번뿐이라는 점이지요. 수능을 잘 볼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가급적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형별 "Key point" 전형 요소는?

의·치대 수시는 일반대학의 수시와 어떻게 다를까요? 의·치대 수시도 큰 틀은 일반대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전형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 전형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학생의 잠재력,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등을 정성평가합니다. 대다수 의·치대가 서류평가 외에 별도의 면접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면접의 비중은 20~50% 정도로 학교마다 다릅니다. 의·치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은 명시된 면접 비중과는 별개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치대 진학을 목표로 비슷한 고교 생활을 해 온 지원자들 사이에서 서류평가만으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접에 의해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치대 면접은 면접 시간이 길고 면접 과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 개의 면접실을 거치며 학업 능력은 물론 의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한 검증을 받습니다. 전형 방법이 복잡한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도 의·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셈이지요.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인 일반전형도 의예과 모집단위에 대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핵심 평가요소는 학생부 교과, 즉 고교 내신 성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의·치대 학생부종합전형이 면접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학생부교과전형은 별도의 면접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특히 전형 방법에서 내신의 비중이 거의 80~90%에 이르기 때문에 내신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도전해볼만한 전형입니다. 다만 의·치대의 특성상 지원자들의 내신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부수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수상경력,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고교 3년간 비교과 부분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이지요. 내신이 아주 우수하다면 가장 쉽게 고려해볼만한 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신, 비교과, 수능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대다수인데다 그 기준 또한 평균 1~1.5등급(3개영역 등급 합 4 이내, 3개영역 각 1등급 등)일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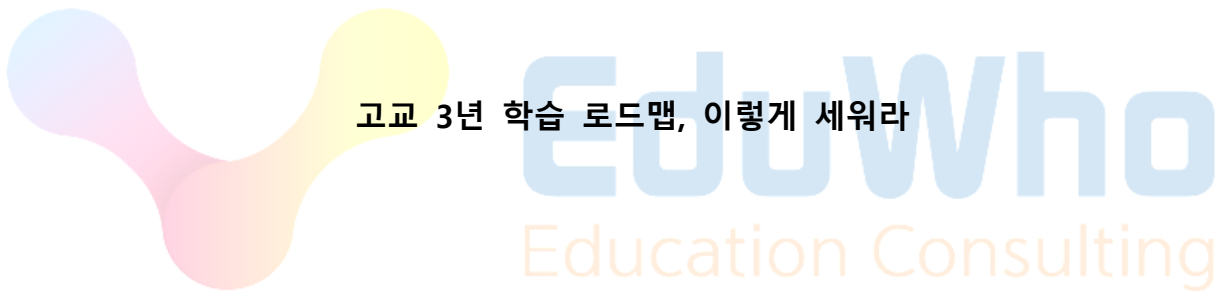
수능 준비가 필수적인 것은 논술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의 비중이 60~80% 정도 됩니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비교과를 함께 반영하기도 하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결국 논술고사를 잘 봐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치대 논술고사 유형은 수학 논술, 수학·과학 논술, 수학·의학(인문)논술로 나뉩니다. 대학마다 문제 수나 제한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논술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비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논술고사 성적이라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수능'입니다. 아무리 논술 고사를 잘 봐도 대학이 제시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 할 수 없습니다. 논술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고, 대체로 학생부교과전형보다도 더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1.6%, 치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2.1%만 선발할 정도로 비중이 적습니다. 선발 인원이 극히 적은데다 처음부터 특기자전형만을 목표로 의·치대 진학을 준비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전형방식도 다른 전형과 차이가 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의·치대 진학을 준비한다면 가급적 가능성이 높은 전형 위주로 준비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에 따라 선택지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8 '팔방미인' 요구하는 의·치대 입시 - 전형별 주요 평가요소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geq 학생부 교과·비교과	+ 수능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 학생부 비교과	+ 수능
	논술전형	논술 > 학생부 교과·비교과	+ 수능
정시		수능	



주요 의대의 경우 수시 경쟁률은 100대 1이 훌쩍 넘습니다. 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치대의 경우도 최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이토록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치대에 진학하려면 내신과 수능, 논·구술을 모두 잡는 종합적인 학습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의·치대 진학을 바라볼 만큼 최상위권 수준이라면 내신과 수능, 논·구술을 각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내신 평균 이 1.0등급에 수렴할 정도로 학교 시험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능에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큼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단계까지 깊이 있게 소화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도 수능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의 논·구술 고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의·치대 논·구술고사의 출제 수준이 높긴 하지만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순 없습니다. 각종 모의고사에서 최고난도 문항을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라면 논·구술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개념이나 접근법도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별로 다른 문제 유형과 접근법에 익숙해지는 과정만 더해지면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의·치대 진학을 위한 최적의 전략은 내신과 수능, 어느 것이 든 최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학습 수준에서는 의·치대 진학에 필요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논·구술 대비가 모두 일맥상통하게 되니까요. 사람마다 공부법이나 성향이 다르므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신을 바탕으로 수능과 논·구술 대비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개념을 쌓아야 하는 고1, 2때는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깊이 있게 소화하는데 주력하면서 학교 내신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되, 이를 발판삼아 수능과 논·구술 준비를 일부 병행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2학년 2학기부터는 서서히 수능과 논·구술 중심으로 무게 추를 옮겨 갑니다. 수능 위주의 학습에 집중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대학마다 다른 문제 유형과 접근법에 익숙해지는 논·구술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고3의 경우 학교 내신 시험도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치대 진학을 위한 최적의 전략은 내신과 수능, 어느 것이 든 최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학습 수준에서는 의·치대 진학에 필요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 논·구술 대비가 모두 일맥상통하게 되니까요. 사람마다 공부법이나 성향이 다르므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신을 바탕으로 수능과 논·구술 대비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개념을 쌓아야 하는 고1, 2때는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깊이 있게 소화하는데 주력하면서 학교 내신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되, 이를 발판삼아 수능과 논·구술 준비를 일부 병행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신 성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2학년 2학기부터는 서서히 수능과 논·구술 중심으로 무게 추를 옮겨 갑니다. 수능 위주의 학습에 집중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대학마다 다른 문제 유형과 접근법에 익숙해지는 논·구술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고3의 경우 학교 내신 시험도 수능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비교과 관리입니다. 교내에서 열리는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자가 점검해 보고, 의·치대 진로와 부합하는 동아리활동이나 독서활동, 탐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죠. 의·치대 면접에서는 인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임원 활동이나 봉사활동, 멘토링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학기 또는 학년 이 끝날 때마다 실제 대학이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면 자신의 활동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역할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